

▶ 6월 23일 열린 「전신망표준화」 합동토론회에서 패널트의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電算網技術및機資材標準化推進을위한合同討論會

日時:1988. 6. 23 ●主催:韓新通信 振興協會



◀ 「전신망표준화」 합동토론회에서 기초연설을 하는 金聖鎭 한국전신원장.



◀ 29일 열린 정보통신서비스 진흥에 관한 간담회. 원내는 개회사를 하는 金志柱 회장.

電算網기술 및 기자재 標準化를 위한 합동토론회

전산망 사업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전산망 기술 및 기자재 표준화를 위한 합동토론회>가 지난달 23일 하오 2시에 개최됐다.

한국데이터통신 14층 회의실에서 1백 60여명의 업계 및 관련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金聖鎭 한국전산원장의 기조 연설에 이어, 고려대 黃鍾善 교수의 사회로 표준화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 표준화의 대상 및 범위 설정, 표준화 추진의 문제점 등의 내용으로 패넬토의가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예상외로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 전산망 표준화에 대한 관련기관 및 업계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45면>

이달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으로서 지난 달 각 위원회의 간사 및 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국제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는 이달중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7월 5일 첫 회의를 갖는 국제협력 위원회에서는 일본정보통신진흥협회(JICOA)와의 교류 협력방안, PTC(태평양 통신심의회) '89연사 파견에 관한 논의, IIA(미국 정보산업협회)·AIIA(오스트레일리아 정보산업협회)와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

통신기본교육, 4일부터 2주간 실시

통신에 관한 기초이론 및 실무지식의 고양에 도움을 주고자 협회가 마련한 통신기본교육과정이 지난달 개설된데 이어, 30명 정원으로 인원이 편성, 이달 4일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이 교육은 2주간(총 60시간)에 걸쳐 실시되는데, 협회는 이번 교육의 성과를 분석, 본 교육과정을 상설과정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진흥에 관한 간담회

협회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 서비스 진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원사 및 업계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 상황을 이룬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의 연구제시, 역무제공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회와 업체의 협력방안, 공중통신사업자와 역무업체의 업무영역 설정에 관한 논의,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조속한 운영 건의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 진흥책이 토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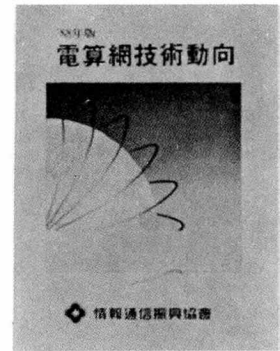
간담회 진행에 앞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협회 활동방향 및 하반기 주요활동 계획보고가 있었다.

<관련기사 9면>

'88년판 電算網技術動向 배포

전산망에 관한 국내·외 첨단 기술 동향과 사업 및 관련 통계자료를 수

록한 「'88년판 電算網技術動向」이 지난달 배포되었다.



배포대상은 회원사, 관련기사, 언론사 등이었다.

한편 '89년판은 수정보완을 위한 편집에 착수, 이달중 1차 편집회의를 갖고 앞으로 3차례의 편집회의를 거쳐 12월 중 발행하게 된다.

「전산망기술기준」 공청회 7월 22일 개최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공청회가 한국전산원 주관, 협회 주최로 오는 22일 개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공청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체신부에 전달, 규칙(안)이 갖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자료로 쓰이게 된다.

이 규칙(안)은 지난 3월 발표되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론 제기로 연기된 바 있다. ■